

제 78 회 국 회 회 의 록 개회식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1년 9월 1일 (수)

제 7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순 1971년 9월 1일(수) 오전 10시 개식

- 1. 개 식
- 1. 국기에 대한 경례
- 1. 애국가 제창
- 1.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 용사를 위한 묵념
- 1. 개 회 사
- 1. 폐 식

(사회 섭의실장 직무대리 趙琮鉉)

(10시 5분 개식)

○섭의실장 직무대리 趙琮鉉 지금으로부터 제 78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동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이 있습니다.

(묵념)

일동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가 있습니다.

○의장 白斗鎭 오늘 제 8대 국회의 첫 정기의 회인 제 78회 국회의 개회를 맞이하여 본인이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난번 제 8대 국회의 개원에 즈음하여 급변하는 인류역사의 새 조류와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미묘한 움직임에 대처할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세계의 형세가 어떻게 달라지든간에 민족의 좌표확립과 굳건한 자주역량의 구축없이는 거래의 숙원인 국토의 통일과 조국근대화에 의한 민족중흥의 성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

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불과 지난 한달 동안에 급격히 조성되고 있는 미국과 중공간의 해빙분위기라든지 또는 이러한 조류속에서 우리 적십자사가 주동이 되어 전개하고 있는 이산가족찾기운동들은 만일 中共이나 北傀가 진심으로 그 세계적화를 위한 무력도발의 야욕을 포기하고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전인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일이라면 그 이상 세계평화를 위하여 다행하고 바람직한 일인 것은 없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도 머지않아 가기(可期)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함께 이러한 꿈과 같은 기적이 공산진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고 간절하면서도 경계와 위구로써 이러한 사태진전을 조심스럽게 주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국토를 분단 당하여 한 가족 한 핏줄기가 남북으로 흩어진채 피보다 「이베오르기」 민족보다 제국을 앞세우는 북괴 공산세력이 북한을 강점한 후 지난 4반세기동안의 한반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大韓民國을 무력으로 적화하겠다는 꿈임없는 공산도전과 이로부터 자유와 민주를 한사코 수호하려는 우리의 자위적 투쟁과의 대결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컨대 4반세기 동안 피어린 속청과 총검에 의한 무자비한 방법으로서 공산사회

체제를 복원에 심고 인간의 적화개조까지 하여 놓은 복귀가 이제와서 급작스러운 미중공해병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모든 야욕을 버리지 못할 것은 너무나 명백한 추리입니다.

특히 공산정권의 유지 자체는 경제적 결핍속에서 오직 긴장분위기의 지속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화해라는 분위기의 응남 자체가 그들의 권력붕괴를 뜻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복귀 자신이 절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해병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장래의 일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라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이 국회는 이러한 국내외로부터의 긴장완화를 향한 소리가 높아가면 갈수록 자유와 민주위에 건립된 대한민국의 기틀을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 한층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에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공표된 미국의 「닉슨」대통령의 중공방문서에 있을 것이라고 전해지는 한국 문제의 거론이나 또는 소위 강대국에 의한 우리 운명의 타율적인 해병모의중 망발에 대하여는 우리 국회가 국민에 앞장서서 그러한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 78회 정기국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국회의원 것입니다.

국정 전반을 감사하고 1972년도의 국가예산운 범정기일내에 심의성립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 국회인 것입니다. 특히 명년도 예산은 제 3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이 시발되는 첫해의 예산이며 앞으로 5년후 이 계획이 성립될 때 우리가 중진국 상위권의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느냐를 판가름 하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국회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항목들을 모든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 지원한 후에 중지를 모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8대국회는 더욱 더 대화와 설득 그리고 협조위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따라서 여기서 거론처리되는 모든 의사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함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지난날 흔히 볼 수 있었던 비와 같이 당리나 지방색을 앞세우는 등 소아에 얽히어 내의를 몰락하는 일이 만에 일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명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각별히 유의하여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노피실에서 한두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 농업투자에 있어서는 과도한 외곡도 입을 지양하고 양곡의 자급자족을 조속한 시일내에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서는 국책성과 지방성이 부합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예산의 쟁탈분식과 같은 비효율적인 자금사용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지조건이 맞지 않는 공장의 유치가 자본의 허실이 되기 쉽고 예산의 분식은 자금효율을 감퇴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있는 예산의 골고루쓰기라는 사고는 국가적 입장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개발예산에 내재하기 쉬운 재정 「인플레이」의 요인은 제거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내경제는 지난번 환율인상후 물가를 비롯한 불안정 요인이 점증하여 오고 있고 세계경제는 단시일내에는 그 혼미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하에 있으므로 명년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경제는 불황속의 「인플레이」를 면치 못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재정부문에서 「인플레이」요인만은 완전히 제거하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미국의 급대한 중지 수입부가세 신설 외원사감 등은 우리나라의 적은 물량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것이 추측되는 바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입법부와 정부의 지혜로운 협조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이 이 자리를 빌려 행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그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점은 입법부의 국정감사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오직 행정부의 예산의 성실한 집행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임

니다.

그런고로 국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
능은 국가예산의 사후검토 환연하면 결산보
고도 예산심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요약하건대 금기국회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민복의 두가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므로 우리는 한정된
회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이 정기국회가 빛나는 예산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원 제위의 성실하시고 질지하신 심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섭외실장 직무대리 趙琮鉉** 이것으로써 제
78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10시 17분 폐식)